

# 문학 기출 문제

---

- 2025 학년도 -

문학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앞부분의 줄거리]**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충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충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삼 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에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며 **매를** 많이 맞고 여쭙오되 “어서 바삐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한데 왕비 크게 노하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며 문왈

“충렬부인은 어디 계시나?”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왈

“승상은 바삐 충렬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나?”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건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 왈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한데 부인이 눈을 떠 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년지수의 해 같고 칠년대한의 빛 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둔맹**을 찢겨 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슬픔에 매우 아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새, 왕비전에 죄온대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알이 이르시되 승상 왈

㉠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연려** 마옵소서.”

하며 왈

㉡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왕비 왈

“사춘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대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하릴없어 옥줄을 잡아들여 얽히 문왈

“너희는 어찌 충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뢰라.”

하신대 옥줄이 급히 여쭙오되

“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

인 등 소견에 충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한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

“이 말을 듣고 네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무더기를 싸고 지빠졌는지라. 금연이 하릴없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북을 하고 충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충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시매 복록이 왕비에게 참소하던 연유를 낱알이 아뢴대 왕비 곁에 있다가 **양친통곡**하시며 왈

“내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충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부인을 보리오.”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왕비 침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부인을 곁박하여 땅에 꿇리고 크게 노하여 왈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렬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오.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하고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오되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웁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부인이 이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리 하온 일이 있사오닛가.”

하고 금연이 흥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알이 아뢰었다.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 01

㉠, ㉡과 관련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보니,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군.
- ② ㉠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 ③ ㉡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 ④ ㉡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 ⑤ ㉡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군.

# 03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정을선전」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뒷글을 바탕으로 인물 간에 나타난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인물 A	인물 B	소통의 내용
①	원수	중군장	A가 B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함.
②	승상	월매	A가 B에게 총렬부인이 있는 곳이 어디 인지 물음.
③	옥졸	금연	B가 A로부터 옥중 시신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를 얻음.
④	옥졸	승상	A가 B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⑤	금연	승상	B가 A로부터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알아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음.

# 02

누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 ②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 ③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렁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 ④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⑤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문학

2025학년도 9월 고3 평가원

(가)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 부여를 속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 오로촌이 뗏목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쫄론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올던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파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 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 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높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낫  
없이 떠도는데

㉥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  
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나)

겨울 아침 언 길을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

창이 하나 생겼다

물고기네 지방을 톤 ㉠ **살얼음의 창**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훤히

나의 생가 같았다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젖을 갖 댄 어린것들은**

찬 마루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놀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떼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썩기에 살고 있는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

-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 -

(다)

**이문원 동쪽 늪은 나무**가 있는데 적어도 **백여 년**은 된 것 같다. 그 몸통은 울퉁불퉁 웅이가 쪼고 가지는 구불구불 뻗어서 멀찍이서 보면 가파른 산등성이나 성난 파도 같았고 다가가서 보면 둥그스름한 큰 집채 같았다. ㉠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그 기둥이 모두 열두 개이다. 나무 옆에 누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불을 들고 가서 숙직하는 장소이다. 좌우에 책을 쌓아 놓고 교정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따금 나무 곁을 산책하였다. 썩짜 불어오는 긴 바람 소리를 들으며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 아래를 거닐면 몸은 대궐 안 관청에 있어도 숲속의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홀췌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다.

하루는 내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전하는 계획**이 있기 마련일세. 풀명자나 배, 굴이나 유자, 사과나 석류 같은 나무들은 열매가 커도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네. 하지만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풀 같은 풀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네. 그래야 말발굽이 짓밟거나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더 손상을 입지 않지. 지금 저 늪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보다 갑절로 뻗어 사방에 드리워도 잘라 낼 줄 모르네. 만약 받쳐 주는 기둥이 없으면 부러지고야 말 걸세.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는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아!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툼으로 잘라** 내야만 광대뼈를 뚫는 거정을 모면하였다. 이제야 알겠구나. 늪은 나무를 기축에 견주자면 뿔을 잘라 내야 온전해질 수 있는 암소와 같다. **기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늪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나는 **저 깊은 산중 인척 끊긴 골짜기**에 이렇듯이 번성하게 자란 늪은 나무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 유본예, 「이문원노종기(摛文院老縱記)」 -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께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나오던 그 녹녹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와 부대원들은 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발견한 유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하여 매장하는 일을 행한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찢겨떨적 쇠소리를 낼 듯한 철삿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 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 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험빛은 등을 까 내놓고 죽은 듯이 옆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

늘게 오므리고 졸곤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 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단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배 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 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아연 목 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짙어 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쓴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뗏장까지 입혀 놓고 보니 영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싶었다. 노인은 술을 흠 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 일병이 노파가 준 북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엄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찬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킁킁대며 ㉤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 **저것 봐라**이. ㉦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삿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쾅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 **불현듯** 시야가 부엌에 **흐려** 왔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 **쑥부쟁이**와 **영경귀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01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
- ② ㉡: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 ③ ㉢: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 ④ ㉣: 인용 부호 없이 서술된 발화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 ⑤ ㉣: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진다.

## 02

윗글에서 ㉡와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이야기의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면, ㉢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하도록 하는 단서이다.
- ② ㉡가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추진력이라면, ㉢는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다.
- ③ ㉡가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면, ㉢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 ④ ㉡가 이야기의 위기감이 해소된 종착점이라면, ㉢는 이야기의 위기감이 고조된 정점이다.
- ⑤ ㉡가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면, ㉢는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귀결점이다.

## 03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에 비해 능동적이므로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 ② ㉡는 ㉣과 달리,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면서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하게 된다.
- ③ ㉣은 ㉡와 달리,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결과이다.
- ④ ㉣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에 투영된 염원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다.
- ⑤ ㉡와 ㉣ 모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이 알려진다.

# 문학 기출 해설

---

- 2025 학년도 -

## 빠른 해답

- 01 ② 48%      02 ④ 70%      03 ① 52%  
04 ④ 51%

## 01

㉠,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보니, 호첩에게 묻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군.
- ② ㉠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 ③ ㉡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 ④ ㉡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 ⑤ ㉡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군.

### 정답풀이

- ② ㉠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금연이 자백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렬부인은 자신을 간병하던 총렬부인에게 침소로 가라고 강권하여 총렬부인이 침소에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씌우고 있어. 따라서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인 총렬부인을 자신의 침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

### 오답풀이

- ① ㉠을 보니, 호첩에게 묻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군.

누명을 썼던 인물(총렬부인)은 승상과 만난 후 "자신의 누명을 씻겨주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뿐,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지는 않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는 것은 승상의 어머니인 왕비로, 금연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자백하자 '결에 있다가 양천통곡하'며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라고 말했지.

- ③ ㉡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누명을 쓴 인물(총렬부인)은 승상에게 자신의 누명을 벗겨달라는 요청을 하지. 하지만 남주인공(승상)이 이러한 요청 때문에 누명을 씌운 인물(정렬부인)의 처벌을 유보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승상은 사건의 진상을 알아낸 즉시 정렬부인을 결박하고 황상에게 사건의 진상을 담은 상소를 올린 후 처벌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어.

- ④ ㉡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왕비는 ㉡에 대해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라고 답하고 있어. 따라서 왕비에게 '그놈'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왕비의 사촌 오라비(복록)였다는 걸 알 수 있지.

- ⑤ ㉡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군.

승상은 왕비로부터 '그놈'에 대해 제보한 한 것이 왕비의 사촌 오라비(복록)이었다는 걸 알아내곤 그를 찾아가지만 이미 그는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다고 하고 있어. 즉, 복록이 자신이 지은 '죄'에 중압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 02

누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 ②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 ③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 ④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⑤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 정답풀이

- ④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금연이 자백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렬부인은 자신을 간병하던 총렬부인에게 침소로 가라고 강권하여 총렬부인이 침소에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씌우고 있어. 따라서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인 총렬부인을 자신의 침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